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리사이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막말은 여전하다. 누가 미워하든 싫어하는 상관하지 않는 것 같다. 마치 자신만의 세계에서 나 홀로 리사이틀을 하는 것 같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고도에서의 사인(私人)이라면 몰라도 명색이 일국의 제1야당 수장이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다음 총선에서는 당 자체가 파락호로 전락할지는 모르지만, 그 이유를 또한 꼭 같다.

참으로 현대판 돈키호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마치 세르반테스가 다시 태어나서 한국판 돈키호테를 썼을 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대표가 이러니 지지율이 오를 리 있겠는가. 지난 19일 꺾임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9%였다. 반면에 여당인 더

불어민주당은 46%였다. 자유한국당보다 무려 5배 이상이나 높았다.

이는 무엇을 뜻할까. 바로 자유한국당의 현주소, 특히 긍정적인 생각을 거의 갖지 않은 것 같은 홍 대표의 실상을 그대로 표현해 준 것이 아닐까.

정치적 프레임도 좌파 광풍이라는 단어 등을 사용하는 등 극히 일부계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통하지 않을 언행을 지속하고 있다.

처음에는 뭐 저런 사람이 있을 까 하는 생각을 갖는 국민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약한 잡음 정도로 치부하는 현상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 같다.

홍 대표는 지난 22일 신년기자 회견에서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6자리가 마치노선"이라 했다.

그 이상까지 가능하다고도 했다.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6곳을 지켜내지 못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말도 했다.

어쩌면 다가올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는 이런 그의 기이한 행동을 보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6곳을 석권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여당을 비롯한 기타의 정당에서는 기인인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가 자유한국당에서 견제해야 할 사이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물론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도 때문에 눈과 귀를 괴롭게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대한민국 정치의 올바른 좌표를 위해서 인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이 정

도로 망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 그를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참으로 궁금하다.

민약 젊은 층의 자녀가 있다면 충고라도 해주면 어떨까. 특히 홍 대표는 팩트가 아닌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지난 22일 신년기자 회견이 1시간 이상 진행될 때 "이 좁하자. 나는 혼자 답변을 해야 한다. 나는 문 대통령처럼 답변을 써주는 프롬프터도 없다. 문 대통령은 기자들이 물어보면 실시간으로 프롬프터에 올라오더라."라고 했다.

즉 문 대통령은 답변을 스크린에 띄워주는 프롬프터가 있었기에 100분에 가까운 기자회견이 가능했고, 자신은 즉흥적으로 질의응답에 응하면서 내실 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였다.

하지만 이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만약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때문에 자유한국당 대표가 된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

홍 대표의 실체를 미리 검증하게 되었으니까, 사실 언행을 부릴 때마다 자신의 허허로운 실체만 알려주고 있다. 정작 본인만은 모른 체, 아니 알면서도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社說

반려견 안전관리 잘해야

3월부터 반려견을 갖고 있는 사람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개 파리지'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니 견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다.

공공장소에서는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며,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지역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

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반려견 소유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해 발생이나 맹견 유기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자 등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반려견으로 인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줄어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謂語助者

謂語助者

▷ 뜻: 어조와 함은 한문의 조사, 즉 다음의 4글자임.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장 이흥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이영주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



무술년, 따뜻한 보훈·따뜻한 제대군인

무술년 새해가 밝은 지도 20여 일이 넘었다. 작심삼일이라고는 하지만 오늘도 취업을 위해 광주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2018 정기 취업 워크숍을 찾은 제대군인의 얼굴에서는 그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왔던 세월과 노력, 성실함이 보인다. 국가 안보를 위해 힘써왔던 세월을 잊고 다시 사회에 복귀하려는 그 분들의 절박함을 보고, 나태해졌던 나를 반성한다.

제대군인지원센터는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군복무 중 본인의 능력에 관계없이 계급정년으로 인해 부득이 전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평균 전역 연령은 44.6세이

며, 그 중 30~40대가 54.7%를 차지하고 있다. 30~40대가 자녀 학비지출 등 가정의 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이므로 갑작스런 전역에 따른 개인과 한 가정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개인의 문제로만 여기기에는 너무나 큰 사회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사람과 현장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기조로, 제대군인 분야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성 중심의 취업지원으로 그동안 소외받았던 여성 제대군인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여성 제대군인 맞춤형 전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화된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협업을 통하여 정책 시너지를 증대할 것이다. 또한, 의무복무병인 고졸 이하 취업맞춤특기병들에게도 중앙

기복무 제대군인과 동일한 취업상담 및 알선 등을 할 예정이다.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는 2018년에도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다양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제대군인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원 가입이 필수적이며, 처음 가입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창업 컨설팅을 위해 개인별 전문컨설턴트를 배정하여 1:1 맞춤형 진로상담, 경력설계, 직업훈련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제대군인에게는 직업교육훈련비, 전직지원금 등과 같은 구직활동 촉진 장려금을 지급을 통해 구직활동 중 직면하게 될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업 등의 채용계획 수립과 각종 잡서칭 활동을 통해 제대군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채용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체 서류전형에 합격한 제대군인의 면접에서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컨설턴트가 면접에 동행하는 동행면접을 실시하고 있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는 현역 군인들이 군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버팀목으로 이런 버팀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관심과 배려로 우리사회가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은 황금 개의 해이다.

예전부터 개는 충성심이 강하고, 관대함이 몸에 배어있어 타인에게 헌신적이며 신뢰를 묵숨처럼 여긴다. 맑은 임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행하는 책임감 또한 제대군인과 비슷하다. 2018년은 황금 개의 기운을 받아 제대군인들이 제2의 인생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 따뜻한 보훈, 따뜻한 제대군인이 많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Advertisement for '문화융성' (Cultural Convergence) featuring a woman and a man. Text: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itch perspectives?). Includes logo for '한국인본진흥재단' (Korean People's Welfare Foundation).